

한땀 한땀 나만의 가방... 명품 부럽지 않아요



패션 아이টে็ม으로 자리잡은 가죽 팔찌.



열쇠고리, 카드지갑 등 가죽으로 만든 소품들.

과거 통가죽 공예가 유행할 때가 있었다. 두툼한 원가죽에 염색을 하고 수지판을 찍어서 무늬를 내는 방식으로 가방이나 지갑 등을 만들어 사용했다. 두꺼운 가죽원단에 밤색 위주의 컬러 때문에 가을이나 겨울에 멋을 내는 정도의 아이টে็ม이었다.

요즘의 대세는 빈티지 가죽공예다. 다양한 컬러로 염색이 되어 나오거나 사포질 등으로 오래된 느낌의 멋을 표현할 수 있다. 통가죽에 비해 두께도 얇아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다양한 컬러 빈티지 가죽공예 대세
초보자 공방서 기본적 기술 익혀야
바느질은 송곳으로 구멍 뚫은후에



가죽공예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 이명임씨 뒤로 다양한 컬러의 가죽제품이 진열돼 있다.

“가죽을 이용해 만들 수 있는 소품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 만들어진 완제품을 사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과거에는 통가죽으로 많이 만들어서 계절의 영향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컬러로 염색을 한 가죽이 많아서 어느 계절이라도 잘 어울리는 아이টে็ม이지요.”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에 위치한 ‘유쾌한 작업실’은 손재주가 뛰어난 이명임(40)씨가 퓨전 빈티지 가죽공예를 가르치는 공방이다. 컨츄리 인형이나 손뜨개 인형, 소이캔들, 석고방향제, 홈패션, 톨페인팅 등 다룰 수 있는 종류가 무수히 많지만 요즘 유독 가죽공예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씨의 공방에는 다양한 가죽공예 소품이 진열돼 있다. 카드수첩, 키링, 필통, 다이어리 커버, 크로스백, 빅 백, 파우치, 원형 파우치, 핸드폰 케이스 등 염색된 가죽에 스탬핑을 하거나 잠 장식으로 멋을 낸 퓨전 빈티지 가죽공예가 대부분이다.

“작은 소품이나 미니어처를 많이 만들어 놓아요. 같은 제품이라도 가죽의 색에 따라 느낌도 다르니까요. 초보자들이 공방에 와서 직접 보고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요.”

이씨는 가죽공예를 처음 배우는 초보자들에게는 공방에 직접 찾아와 기본적인 기술을 배우기를 권한다. 패키지 형식으로 재료만을 구입해서 만들 수 있도록 설명서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처음이라면 직접 보고 배우는게 실패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단순히 취미로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가죽공예에 필요한 도구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구입하는 것보다 공방에서 재료를 내고 배우면서 원하는 소품을 만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씨가 요즘 가장 핫한 아이টে็ม인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보기도 했다.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기종에 맞춰 도안을 준비하고 가

죽 원단에 송곳을 이용해 도안을 그려준다. 재단을 할 때는 잘 드는 칼로도 충분하다. 가위로 자를 경우 가죽이 밀려거나 비틀어져서 깔끔하지 않다. 곡선은 부드럽게 눌러서 자르는 프레스 기구를 이용하면 좋지만 없을 경우 가위로 부드럽게 잘라준다. 재단이 끝나면 유성잉크를 문힌 스템프로 원하는 부위에 그림이나 글자를 새겨주고 액세서리로 장식식으로 꾸며준다.

장식이 마무리되면 바느질이 시작된다. 바느질을 하기 전 디바이더를 이용해 구멍을 먼저 표시하고 송곳으로 뚫어준다. 맨 가죽에 바늘을 통과시키는 건 힘들기 때문이다. 가죽공예에는 초실을 써서 바느질을 하는데 일반 면사에 왁스칠을 해 놓은게 초실이다. 초실은 실이 가죽을 통과할 때 생기는 마찰로 끊어지는 것을 보호하고 실꼬임이 풀리지거나 바늘 땀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아준다.

실 역시 빈티지한 색을 쓰는데 어려움이 섞인 레인보우 실이나 단색을 고르면 된다. 지퍼를 달거나 테두리를 바느질할 때는 흡질을 한다. 실의 마무리는 매듭을 짓지 않고 불을 붙여 녹여서 눌러주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핸드폰 케이스 양 끝에 구멍을 뚫고 아이렛으로 구멍을 보호해준 다음 가죽끈을 달아주면 완성된다.

가죽은 관리도 중요하다. 매일 쓰는 지갑이나 핸드폰 케이스 등은 일일이 가죽보호제를 바르는데 무리가 있지만 최소한 물이 닿지 않도록 하는게 좋다. 자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가죽에 묻은 이물질이나 오염된 것을 제거하고 유분이나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이 좋다. 염색이 된 가죽은 빛에 노출이 됐을때 본래의 색이 나오지 않도록 선풍기 효과가 있는 보호제를 발라준다. 보관할 때에는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 보관하고 습기에 약하므로 가끔씩 꺼내어 건조시키는게 좋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난해 열린 '도서지역 오케스트라 음악캠프'

도서지역 오케스트라 음악캠프

**전남문예재단-GS칼텍스
연세대 교수·학생 재능기부
내일까지 무안 여성플라자**

흑산도 섬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변신한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이 GS칼텍스재단과 함께 오는 21일까지 무안군 여성플라자 공연장에서 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서지역 오케스트라 음악캠프’를 연다.

이번 음악캠프는 연세대학교 음악과 관악기 전공 이철용 교수와 대학생 전문연주자로 구성된 연세대 심포닉 윈드 오케스트라, 전남 관악 윈드 오케스트라 강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음악캠프에 참가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3박4일 동안 전문강사와 일대일 맞춤형 교육, 우수 전문강사가 직접 레슨을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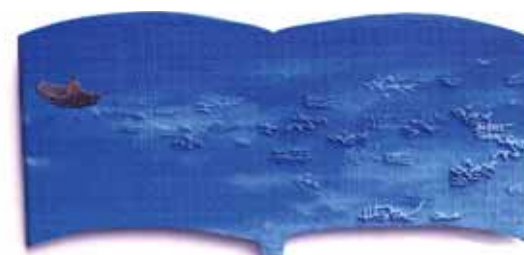
또 음악캠프 마지막날인 21일 전남여성플라자 대강당에서 음악캠프 기간 동안 연습했던 제이 샤테웨이의 ‘스페인 열정’(Spanish Fever)을 비롯해 아바 골드(Abba Gold), 황문규씨가 작곡한 ‘신아리랑’ 등을 연주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의민(신안 흑산 초 3년)군은 “음악을 듣고 있으면 화났던 마음이 잔잔해지고 좋다”면서 “열심히 클라리넷을 연습해 좋은 연주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도서지역 오케스트라 음악캠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 중인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공동협업사업’ 일환으로 지난 해부터 전남문화예술재단과 GS칼텍스재단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총 2차례 진행되며 오는 12월 전남 동부권 지역 아동·청소년 50여명과 연세대 현악기 전문강사들이 함께 연주를 하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예술가의 초상’展... 트라우마 엿보기



전현숙 작 '그대에게 드립니다'

**예술인협동조합 '다다'
대인시장 한 켠 갤러리
29일까지...14명 출품**

예술인협동조합 '다다'는 29일까지 광주 대인시장 한 켠 갤러리에서 '예술가의 초상'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전현숙, 조은솔, 서영실, 김준표 등 다다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4명이 참여했다. 또 고재근, 강선호, 김엽, 박인선, 배수민, 윤남웅, 이승일, 장윤환, 채지윤, 홍희란 등 10명의 선배 작가들이 출품했다.

전시 주제인 '예술가의 초상'은 작가들이 경험했던 트라우마에 대한 '엿보기'란 뜻이 담겨 있다.

김준표씨는 외로움의 성체를 구축하고 '감정표현'과 '감정제어'에서 오는 감정을 작품에 녹여냈고, 서영실씨는 '생존'이라는 현실적 굴레에 매여 '생계'라는 압박에 시달리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또 조은솔씨는 마스크 뒤에 숨어 보호색을 발동하고 있는 자아를 표현했고, 전현숙씨는 어린 되기를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앓는 중년의 모습을 표현했다. 문의 010-2620-8614.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통나무가구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8월 22일까지 SALE**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 1899-0240 **신상품 다량 입점**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